

함께 크는 우리 아이



단오 행사 하는 날, 씩씩한과 해바라기 터전 아이들, 아마들과 함께 길놀이를 시작하는 토토로선생님

여는 글/03
교육평가 및 교육계획/05
터전소식/22
단오행사 후기/28
터전살이 후기/31

날적이 톺아보기/33
편집후기/35

2012.7



함께 크는 아이, 더불어 성장하는 부모, 나누며 사는 사회

아이들의 해맑은 꿈과 미래를 위해
부모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대구공동육아협동조합은

살아있는 생명인 우리 아이들에게 열려 있는 세계를 만들어 주자는 취지로
1995년 8월에 개원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교육이 삶과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가치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자연과 함께 마음껏 뒹굴고 놀면서
자연의 생명력을 몸으로 느끼게 하고,
생활 안에서 배우고, 스스로를 존중할 수 있도록 배려하며,
차별 없이 평등하게 어울리고 이웃과 더불어 세상 속에서
행복하게 자라고 살아갈 수 있도록 교사와 부모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커다란 삶의 놀이터'이자
'열린 공동체'가 바로 대구 공동육아 협동조합
'씩씩한 어린이집'과 '해바라기 방과후'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시지동64-6
053-791-6879(씩씩한 어린이집)
053-793-6879(해바라기 방과후)
<http://cafe.gongdong.or.kr/siksikan>

대구공동육아협동조합

더욱 ‘실한’ 수박이 될 수 있게 ‘슬기로운’ 관계가 되었으면

이재선(세하다안차람모)

집에서 동물과 식물을 길러본 경험을 이야기해 보세요.

동식물을 건강하게 키우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세요.

초등학교 2학년 『슬기로운 생활』 84쪽에 나오는 학습 활동이다. 주말이라 세하 담임 선생님이 숙제를 많이 내주셨는데 그 중 하나가 동식물을 건강하게 키우는 방법을 친구들에게 소개할 수 있도록 A4 용지에 그림과 함께 자기가 동식물을 키우는 방법을 쓰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집에는 키우는 동식물이 없다는 거다. 그 많던 화초들도 다 죽었고, 세하 1학년 때 허브힐즈에 현장체험학습 갔다가 사온 로즈마리도 말라죽었다. 하지만 세하가 키우는 동식물은 많았다! 세하는 방과후 해바라기 터전에서 사슴벌레를 키우고, 수박도 키우고, 토끼도 키우고 있다는 사실! 옷싸!!

쓰레기 봉지에서 발견한 애기 사슴벌레는 여러 어른들과 형님들의 도움을 받아, 또 ‘씩씩한’에서 당당하게(!) 젤리를 얻어와 먹이며 제 사물함에 넣어놓고 애지중지 키우고 있다. 수박은, 해바라기에서 간식으로 수박을 먹던 중 수박씨를 골라내 한 번 키워보자는 해균이의 엉뚱 제안을, 평소 해균이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극진히 받들어 모셔, 세하 실행에 옮긴 결과, 수박씨에서 새싹을 틔워내는 극적인 장면을 연출, 그 가느다란 줄기에 수박 열매 달릴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토끼는 사슴벌레, 수박 새싹만큼 세하의 손길이 가 닿지는 않지만 가끔 풀을 주고, 쓰다듬어주기도 ‘애완견’인 양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다.

세하는 숙제로 사슴벌레, 수박, 토끼 중 무얼 할까 행복한 고민에 빠져 있다가 결국 사슴벌레를 제치고 수박씨를 그리기로 했다. 먼저 세하가 꿈꾸는 커다란 수박을 한 덩이 그리고, 그 옆에 작은 화분에 싹이 돌아난 그림, 그리고 물조리개를 그려 넣어 내용면에서 제법 완성도 있는 그림을 그렸다. 바라보고 있으니 참 흐뭇하다.

그림 밑에는 다음과 같은 글을 써 넣었다.

수박은 햇빛과 물을 좋아하며 이틀에 한 번씩 (물을) 주고 수박씨 심을 때는 휴지나 솜에 물을 많이 적셔서 솜을 통에다 넣고 그 위에 씨를 10개쯤 올려놓으면 된다. 주의할 점 물을 너무 많이 주면 썩는다. 그리고 너무 깊이 심으면 싹이 안날수도있다.


세하는 해바라기 다니는 덕분에 사슴벌레도, 수박도, 토끼도 키운다. 엄마랑만 있으면

절대 키울 수 없는 것들을 제 마음이 저절로 움직여, 또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으며 잘 키워내고 있다. 그러면서 세하도 잘 크다. 마찬가지로 다른 아이들도 여러 선생님들과 조합원들의 따뜻한 사랑과 관심으로 잘 커나가고 있다. 주눅 든 아이는 북돋아주려 하고, 너무 활달한 아이는 좀 누그러지게 보드라워지게 매만져준다.

이곳은 아이도, 식물도, 동물도 참 잘 키워내는 곳인데, 어른에게만은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아 드문드문 아쉬운 마음이 들 때가 있다. 나는 이곳에 와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고, 개인적으로 배울 점도 참 많았다. 말을 참 조리있게 잘 하는 사람, 살림과 요리를 야무지게 잘 하는 사람, 유머가 있는 사람, 그저 마음 좋은 사람, 아이들과 잘 놀아주는 사람, 아는 게 많은 사람, 손발이 부지런한 사람 등 배울 점이 다 조금씩 다른데, 그런 능력을 두루 갖춘 완벽한 인간은 없었다. 아마 앞으로도 만나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내가 배우고, 닦고 싶다고 해서 그런 능력을 갖추

수 없다는 것이다. 내 적성, 특히 내 체력을 염두에 두지 않고 그런 능력을 두루두루 갖추려 할 때 내 삶이 매우 피곤해지고 불행해진다는 것도 일찍이 깨달았다.

나는 우리가 다른 어린이집도 아닌, 아이의 타고난 기질과 성향을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이곳에 들어온 이상, 우리 어른들의 기질과 성향도, 또 잘 하는 분야도 다르다는 것을 서로가 인정해주고 좀 못난 것,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너그러워지기를 바라본다.

수박은 수박일 뿐이다. 수박더러 참외가 되기도 하고, 오이가 되기도 하라고 해서 수박이 굶아가는 게 요즘 세상 돌아가는 형편이라면, 그런 시류에 조금은 저항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곳을 택하지 않았나? 좀 부실한 수박이라도 뿌리째 뽑는, 아픈 결단을 내리지 않는 이상, 그 수박이 더욱 '실한' 수박이 될 수 있게 서로 북돋아 주는, 서로 건강하게 키워주는, 그런 '슬기로운'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 부부관계건, 조합원끼리건, 조합원과 교사와의 관계건 말이다. 

씩씩한 어린이집 2012년 6월 교육평가 7월 교육계획

정현주, 노승복, 박정애, 조윤정, 황태순, 김지영
(아침, 나비, 햇살, 체리, 벚꽃, 피터팬)

씩씩한 어린이집 7월 교육계획

- 이 달의 주제 : 즐거운 여름
- 이 달의 세시와 절기 :
소서, 초복, 대서, 중복
- 이 달의 노래 :
절기 노래, 비가온다, 매미

절기 노래(3절)

곡식 익어 부스락 생기는 망~종
낮의 길이 가장 길다 하~지
작은 더위 시작되는 소~서
일년중에 가장 더운 대~서

비가 온다

윤귀봉 작사, 백창우 곡

비가 온다 뚝뚝 비가 온다 뚝뚝
비가 온다 뚝뚝 비가 온다 뚝뚝
두두둑 두두둑 두두둑 두두둑
갑자기 비가 온다
콕콕 두두둑 콕콕 두두둑
갑자기 비가 온다
개가 온다 끽끽 개가 온다 끽끽
개가 온다 킁킁 개가 온다 킁킁
끄그궁 끄그궁 깨개깽 깨개깽
무서워서 개가 온다

매미

숲속의 매미가 노래를 하면
파란 저 하늘이 더 파래지고
과수밭 열매가 절로 익는다
과수밭 열매가 절로 익는다

■ 교사회 일정

출근 시간
07:30 햇살
08:30 체리
08:40 나비
09:00 아침
09:30 피터팬
10:00 벚꽃

교육 및 회의

3(화) 지역 대표자 모임
공공교 사무국 (2시)/ 아침
4(수) 대구지역 대표교사모임
중앙로 (5시)/아침

20(금) 교사 교육, 교사 긴 회의
(※5시부터 아마 부탁 드립니다.)

26~28(목~토) 여름 교사대회
덕평수련원

휴가

4(수) - 피터팬(연차)
11(수) - 체리(보건휴가)

■ 조합일정

3(화)-조합원 교육

■ 전달사항

19(목) - 차량아마요청(7세 선화 씩씩한 통합활동)
어린이 회관 나들이 차량(2~3대) 요청합니다.
(9시50분-교사 포함14명입니다)

여름 방학 - 7월 30일~8월 3일

7월 일정

| | 월 | 화 | 수 | 목 | 금 |
|----|--|--|---|--|---|
| 1주 | 2 차모동 태권도 산딸기 언덕 | 3 아라방-아이들 결정 마루방-요리활동 가람방-아이들 결정 도담방-비 내리는 풍경 : 우산만들기 (장마 기간) | 4 전체모듬 텃밭 가꾸기 (잡초 뽑기, 수확) 헬스산~계단길 | 5 대동놀이 연령별 모임 선화통합활동 (황도염색) | 6 먹거리교육 달기모듬 소서(8) |
| 2주 | 9 차모동 태권도 연못가 | 10 아라방-아이들결정 마루방-긴 나들이 가람방-요리활동 후 산 나들이 도담방-여름철 시원한 음식종류 알기 | 11 전체모듬 텃밭 가꾸기 긴 계단~연못가 | 12 대동놀이 연령별 모임 조승주생일 | 13 안전교육 달기모듬 백중(15) |
| 3주 | 16 차모동 태권도 도토리길 | 17 제헌절 아라방-아이들 결정 (스케치북, 색연필, 풀,가위 챙기기)마루방 - 도서관견학 가람방-산 나들이 도담방-봉우공원 내비생태관 | 18 전체모듬 텃밭 가꾸기 정자길~등산길 초복 | 19 대동놀이 연령별 모임 선화통합활동 (어린이 회관) | 20 소방교육 요리활동 박성희 생일 달기모듬 대서(22) |
| 4주 | 23 차모동 태권도 기차산 이상화 생일 | 24 아라방 -문화나들이나 물놀이나들이 마루방- 물놀이(예정) 가람방 -아마 초대 도담방 - 부채 만들기 | 25 전체모듬 텃밭가꾸기 기차산~정상~꿀통 옆길 | 26~28 여름 교사대회 중복(28) | |
| 5주 | 30~3(8/3) 여름방학 | | | | |

6월 돌아보기

연합나들이-6월1일[영천 시안미술관]

계획에는 5월에 있었던 연합나들이가 날씨 영향으로 연기되어 유월이 시작되는 첫날 영천 시안미술관으로 다녀왔다. 이날 날씨는 조금 덥긴 했으나 넓은 잔디밭과 한눈에 들어오는 장소여서 아이들이 맘껏 뛰어 놀기에는 좋았다.

올 해는 45인승 대형버스로 왕복이동을 하였는데 작년에 미니버스를 이용하면서 인원을 초과해서 아이들이 조금 불편해 했던 점들이 해소 되어 좀 더 쾌적하게 이용하였고 무엇보다 장거리 이동이어서 개별 자리가 확보 되어 안전벨트를 모두 착용하고 갈 수 있어서 안전 상으로는 더 좋았던 것 같다. 아이들도 큰 버스 이용에 색다른 경험이었던지 하람이는 전날 밤잠을 설치고도 새벽부터 일어나 큰 버스 타러가겠다고 했다는 아마의 이야기도 전해 들었다.^^

아이들의 얼굴,,, 기대에 차고 기쁘고 설레고 즐거워 보인다.

버스안의 큰 유리에서 아이들이 보는 바깥세상,, 바깥풍경은 어떤 것일까?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한 시간 남짓 달려서 시안 미술관에 도착했다. 켈 먼저 도착해서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 자리를 잡고 수건돌리기, 얼음땀 등 자유놀이를 즐기고 있으니 노마도 도착하고 딱지와구슬 어린이집도 도착했다. 노마와 딱지와구슬 아이들도 푸른 잔디에서 마냥 자유로와 보였다. 이내 서로 섞여 풀밭에서 곤충들도 찾고 정글짐을 오르내리면서 장난도 치는 모습들이다. 조금 늦게 솔방울도 도착하여 인사를 나누

고 나니 오전에 예정하고 준비 하였던 게임들을 진행하기에 점심시간까지 시간이 여유롭지 않아 일부는 미술관 관람을 먼저 하고 일부는 자유놀이나 탐색 후 점심식사를 하고서 전시관을 관람했다.

맛있게 준비해 주신 도시락을 펼쳐 놓고 자기 도시락의 것도 먹어보라며 서로 서로 나누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다. 교사들도 정성껏 준비해 주신 도시락을 아이들과 먹으면서 행복하고 감사했다.^^

4개 어린이집 모두 점심과 관람이 끝난 후에 아이들이 켈 좋아하는 ‘과자 따먹기’ 게임을 함께하고 각 터전별로 모두 나와서 즐겁게 노래를 부르는 것으로 일정을 마무리하였다. 장소의 장점으로 아이들이 일정에 매이지 않고 자유로이 탐색하고 자유놀이를 즐길 수 있어서 좋은 점도 있긴 했으나 터전별로 예정 되어진 도착시간이 다르고 지켜지지 않아서 교사들이 모여서 계획하고 준비되어진 프로그램들을 일부 생략했던 점이 아쉽기도 했다.

돌아오는 버스안의 풍경은 즐거이 뛰고 놀았던 아이들의 후의 모습들~~^^ 거의 대부분 잠들었는데 현민이,,그 옆의 찬홍이,,혜승이,, 이야기꽃을 피우느라 잠을 쫓으신다;; 터전에 도착하여 못다 하고 돌아온 보물찾기를 하고 각자 찾은 동물모양의 쿠키를 나누어 먹으며 연합나들이의 일정을 마쳤다.

기차여행(6월 13일 수요일)

상반기 계획된 기차여행을 밀양 체육공원으로 다녀왔다. 날씨가 더워 아이들이 고생스러울까 염려가 되어 가을에 갈까 고민도 했지만 13일 수요일에 구름이 많고 날이 시원해 그야 말로 날씨가 한 부조를 해 주었다.

경산역에 도착해서 대합실을 둘러보고 기차

를 기다리는 동안 역무원 아저씨께 궁금한 것을 물어 보라고 했더니 ‘기차길에는 나무가 사다리처럼 연결 되어 있어요?’(레일이 벌어지지 말라고), ‘기차길 중간에는 왜 저런 게(중앙분리대처럼 보이는 장치) 있어요?’(사람들이 기차길로 다니지 말라고), ‘기차길에는 왜 돌이 있어요?’(먼지가 나지 말라고) 묻는다. 그때 KTX가 지나가자 ‘바람처럼 쌩쌩~ 지나간다.’ 폭풍이 지나가는 느낌이다. ‘몸이 빨려 들어가는 것 같다’며 평소와는 다른 긴장감을 보이기도 한다.

한 칸에 우리가 모두 타고 기차를 타면 바깥 경치를 보는 몇몇을 제외하고는 신발 벗고 의자에 턱하니 올라 앉아 재잘대고, 의자에 서서 뒤돌아보고 깔깔대며 놀자니 30분은 금방 지나간다.

상동역, 육교 없이 철로를 건너다닐 수 있어 이제는 우리가 가 볼 기회가 많지 않은 비교적 아담한 시골역이다.



상동역 앞 벤치에서 간식을 먹고 공원으로 가는 길, 작년보다 열흘 정도 늦게 왔는데 앵두, 복분자, 누렇게 익은 보리와 모내기할 마친 논을 볼 수 있었다.

까끌한 까끄래기가 있는 보리를 거두어 들고 까끌한 벼를 심는다는 망종, 절기 이

야기로만 나누었던 망종을 보리를 만지고 모내기 한 논을 보며 경험 할 수 있었고 석류꽃과 접시꽃, 짓어대는 강아지까지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많았다.

시냇가에 접어들자 아이들 입에서 ‘작년보다 물이 훨씬 많아졌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애들이 진정 아이들인가?하는 생각이 잠시 들기도 한다.

물에 들어가 다슬기를 잡는 아저씨께 ‘아저씨~물 속에서 뭐하세요?’ 묻자 ‘수영한다 너저도 들어 올래?’ ‘아니잖아요 뭐 잡잖아요’ 이야기도 주거나 받거나 한다.

물고기가 많은 데 깊은 물에 더 큰 물고기가 있다. 작은 물고기들이 떼를 지어 다닌다는 등 자신들만의 논리를 펼치기도 하고, 넓지 않은 잠수교에 아이들의 걸음걸이가 늦으니 차들이 아이들이 다 지나 올 때까지 기다려 주고 아이들 인사를 반가이 맞아주는 훈훈함도 느낄 수 있었다.

가는 길에 산딸기도 따 먹고 개똥을 보고선 ‘개똥 발~건~ 밟지 마래~이~’ 뒤에 오는 친구들에게 전달도 한다. 알처럼 생긴 큰 돌을 주워서는 ‘이거 타조알이다~’, 금이가 반으로 잘라진 돌을 주워서는 ‘이건 돌 퍼즐이다’ ‘다른 돌도 찾아보자’며 끊임 없는 놀거리를 찾아낸다.



어느 덧 공원에 도착, 아침 일찍 부터 나비와 아마가 준비한 김밥과 집에서 준비해 온 간식들을 챙겨 먹고 또 다시 곳곳에서 놀이가 시작 된다.

넓디 넓은 잔디밭에서 긴 줄 넘기를 시작으로 꼬마야 꼬마야를 하다가 이어지는 남녀/교사와 아이/무자기로 팀을 나누어 이어지는 줄다리기, 줄다리기로 기운이 없어지자 줄 끝을 흔들어 물결을 만들어 내는 바다 놀이로 시원한 날씨와 시간의 여유로움이 아이들의 놀이를 확장시킨다.

이어 단거리 달리기를 시도 교사들은 힘들까 넘어질까 거리를 짧게 잡으니 아이들은 결승점을 반환점 삼아 출발지점으로 다시 돌아온다. 다시 이어질 수밖에 없는 트랙 한 바퀴 돌아오기, 축구 골대 끝에서 반대편 골대까지 뛰어갔다 오기를 끝으로 달리기는 마무리가 된다.

나무 주변에서는 메뚜기도 잡고, 긴 장대를 주워서 느티나무에서 사과를 따기도 하고 장대를 가랑이에 끼워 기차놀이, 체육 기구를 이용한 놀이, 바람이 불면 바람 느끼며 돌아가자고 이야기하기 미안 하도록 기발하게 놀이를 만들어 논다.

끝이 없는 놀이의 아쉬움을 듯하나 ‘기차 타러 가자’하니 이 또한 즐겁기만 하다. 상동역 앞에서 돛자리를 기차를 기다리며 놀고, 기차다고 오는 동안 커튼을 치고 걸으며 역할 놀이도 하고 역에서 미리 기다리는 아마들의 마중을 받으며 기차를 타고 밀양에 가서 신나게 놀고 돌아왔다.



기차 여행을 새로운 장소로 가보려니 화본역은 오전에 대구에서 출발하는 열차가 없어 다음 기회에 차량을 이용해 다녀 오면 좋을 것 같다. 경주 대릉원은 역에서 아이들 걸음으로 30분 정도로 적당하나 음식물 반입 금지며 나무 그늘이나 잔디밭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라 아쉬웠다. 문화제 보호, 시각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무덤은 속은 공개를 하고 그 넓은 장소에 아이들이 점심을 먹을 곳조차 없다는 점에 대해 고민해 보게 된다. 우리의 역사를 알고 문화유산에 관심을 갖게 되려면 드러남이 자유롭고 제약이 적어야 자연스럽게 문화유산

을 접하고 우리의 역사에 관심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직지사도 식사가 가능한 곳까지 아이들의 걸음으로 1시간 이상 소요되는 터라 하반기에 날이 시원해지면 또 다른 기차 여행의 의미를 챙기며 연령을 고려하여 작은 단위로 오붓하게 다녀와도 좋을 것 같다.

전체교육

- 기본생활습관교육 : 물을 아껴쓰자

매주 금요일 오전은 교육의 날로 정해져 교사들이 순번으로 맡은 교육을 진행한다. 아침열기 시간에 1층에서 뛰어 올라오는 찬홍이가 영화보여 준다고 알려줘서 2층에 있던 아이들까지 모두 빨리 내려 간다. 지난번 교사회내에서 논의했던 모래놀이 할 때 아이들이 수돗물을 많이 사용하니 큰 양동이에 물을 담아두고 아껴 쓸 수 있도록 하자고 나뉘던 얘기를 시청각 교육을 통해 한다. 노트북과 스크린을 연결해서 1층 거실에서 화면으로 나오는 동영상 그림을 보면서 교사와 아이들이 묻고 답하기 식으로 진행했는데 호응도가 높았다. 그 후 아이들은 양동이에 물을 담아두면 장난감으로 퍼담아 적게 쓰게 되었고 수도꼭지에서 팔팔 나오는 물을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었다. 어느날은 수도꼭지를 잠그지 않아 그 물이 뒤쪽 텃밭 마당으로까지 넘어가 낭비가 심했는데 앞마당에 있는 교사가 수시로 교사화장실에 있는 잠금밸브를 조절해 가면서 양동이에 있는 물을 채워줘야 할 것이고 날씨가 추운 날은 물 사용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안전교육 : 공공장소 질서 지키기

기차여행 가기 전날 공공장소에서 질서를 지키자는 약속을 하면서 먼 길을 가니까 이름표를 달자고 했었다. 또한 기차역에는 위험한 곳이 많고 기차가 빠른 속도로 달려오

니까 뛰지 말고 혼자 돌아다니면 안된다는 등 평소 교육 때와 달리 더욱 강조하면서 강한 어조로 했었다. 왜냐하면 많은 인원이 경산역에서 타고 내려야 하기에 안전문제로 인해 긴장감을 주고 서로가 조심하자는 취지였다.

기차안에서 너무 큰소리로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니까 옆사람에게만 들릴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로 얘기하자고 했더니 옆에 있던 윤서가 내게 귓속말을 한다 “햇살. 내일 몇시까지 와야해”

- 먹거리교육 : 음료수에 들어있는 설탕의 양

터전에 실험을 할 수 있는 투명한 유리그릇이 없어 체리샘이 집에서 맥주컵을 여러 개 준비해 오셔서 수월하게 진행을 할 수 있었다. 콜라에 들어 있는 설탕의 양이 과연 얼마나 많을까? 준비물은 콜라, 방울토마토, 설탕, 물, 맥주컵 2개가 탁자에 놓여 있다. 평소 먹는 콜라를 먹어 보라했더니 7세들은 눈치가 빨라 입을 막으며 안먹고 4세들은 먹을려고 한다. 한쪽 맥주컵에는 콜라를 반쯤 붓고 다른 맥주컵에는 물을 같은 양으로 부었다. 물이 담긴 맥주컵에 방울토마토를 넣었더니 가라앉아 있는데 설탕을 한순가락씩 넣을 때마다 조금씩 위로 올라온다. 5순가락을 넣었더니 방울토마토가 완전히 위로 올라왔다. 설탕의 농도에 따라 물컵 속 방울토마토의 비중이 달라짐을 실험을 통해 알게 되면서 아이들이 콜라 등 음료수를 안먹겠다고 하면서 엄마가 만들어준 것만 먹겠다고 약속한다. 다음에는 닭뼈를 넣어 점점 녹아 없어지는 모습을 관찰할 예정이다. 과거 ‘식탁위의 하얀 공포’라는 다큐멘터리를 봤던 기억이 났었다. 우리가 먹는 것중 하얀 것으로 만들어진 것을 되도록이면 줄이자는 내용이었는데 설탕, 소금, 가루에 대한 이야기였고 건강에 조금이라도 관

심있는 사람이라면 좀 덜 짜게, 좀 덜 달게, 조금 덜 배부르게 먹는 습관을 길러야겠다.

- **소방교육** : 일정이 빠듯한 단오행사와 겹쳐 취소하거나 연기하려고 했으나 짧게나마 1층 주방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가정하여 나비샘이 “불이야” 소리로 신호를 알려주고 애들은 입과 코를 막고 빠른 걸음으로 밖으로 대피했다. 미끄럼틀을 여러번 탈려는 욕구가 있고 한 달에 한 번 소방교육 때 만탈 수 있기에 더욱 경쟁이 되어 타고 싶은 만큼 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도담방에서 지오가 형들을 따라 탈려고 고집을 부려 어렵게 탔는데 마지막 도착지점에서 살짝 가속도를 이기지 못해 부딪혔다. 위험 할 수 있는 상황이라 다음에는 울어도 안 태울 생각이요 또 탈래 물었더니 ‘아니’라고 고개를 흔든다.

선화통합 여섯 번째 이야기(6월 21일)

오랜만에 보는 것이라 내가 조금 낯선감이 있었다. 선화 어린이집을 가기 위해 아침간식을 먹은 후 바로 출발. 늘 가는 익숙한 길이고 체력도 거뜬하여 도착하는 시간은 역시 빨랐다. 10분 전 입구에 몸부터 들이미는 것을 선생님이 들어와도 된다고 할 때까지 기다리자고 했지만 뭐가 그리 급한지 신발을 벗고 있다. 아이들과 선생님과 인사 후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에 대한 이야기부터 나누었다. 쑥쓰러운 듯 모두 조용히 있는데 민소가 조심스레 손을 든다. “모래놀이도 하고 친구들과 재밌게 놀았어.” 선화 친구들을 만나면 도와주는 것도 일어나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잘하는 민소. 선화에서는 소방서에 갔다고 한다. 그러자 찬종이 “우리도 다섯 살 때 갔어.”하며 큰 소리로 이야기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하는 활동으

로 전지에 친구를 놓히고 그림을 그리고 꾸미기를 하였다. 두 팀으로 나누어 시작하였는데 환주와 민소가 각 팀의 모델이 되었다.

선화의 친구들도 선생님과 직접 크레파스와 색연필을 잡고 도와준다. 그림을 그리고 색연필로 색칠을 하고 스티커도 붙이고 입고 온 옷, 생김새를 함께 이야기 나누며 꾸민다. 주하는 몸에 관심이 많은지 옷 속의 음경, 가슴, 항문을 그리며 좋아라 한다. 선화의 선생님은 주하가 “이건 똥꼬고 여기서 똥이 줄줄 나와~”하고 얘기하자 웃으며 당황하시고 나는 “주하가 몸에 관심이 많구나.” 하고 넘겼다. 다 그린 후 친구들 앞에서 완성한 그림을 보고 이야기 하기는 서로 하겠다고 하더니 막상 할 때는 “나 안 해”하고 꼬리를 뺐다.

그림 끝나기가 일찍 끝나 실내놀이터에서 놀았다. 아이들이 어찌나 흥분을 하고 뛰어다니는지... 다음 달에는 천연 염색과 이번 주에 못간 어린이회관 견학을 선생님과 미리 얘기 나누며 마무리하였다.



단오행사

음력으로 5월 5일인 단오는 설, 추석과 더불어 우리나라 3대 명절로 이 날은 일년 중 가장 양기가 왕성한 날이라 해서 큰 명절로 여겨왔고 우리나라에서 '수릿날'이라 부르게 된 유래는 "이 날 쑥을 뜯어서 만들어 먹는

쭉떡이 수레바퀴 모양이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옛날부터 전해져오는 단오의 풍속으로는 창포에 머리감기, 쭉과 익모초 뜯기, 대추나무 시집보내기, 단오 비녀 꽂기 등이 있으며 그네뛰기, 활쏘기, 씨름 같은 민속놀이도 행해졌다. 또한 궁중에서는 이날 단오부채를 만들어 신하들에게 하사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올 해 단오는 24일(일요일)여서 22일(금요일)로 당겨 터전에서 단오행사를 진행하였다. 4째주 소방교육 있는 날이라 전체모듬에서 단오에 대한 이야기를 아이들과 나누고 주방에서 불이 났을 때를 가상하여 각 방에서 대피하는 연습을 하고서~

이어 차람아버님께서 만들어 주신 떡메로 떡메치기를 하고 그 떡을 손으로 동글동글 빚어 콩고물을 묻혀 인절미를 만들었다. 맛있는 인절미를 이웃과 나누어 먹으면 더 좋을 거 같아 터전 주변 이웃들에게 떡도 돌리고~ 나쁜 기운도 보내고 머릿결도 좋아지는 창포물에 머리를 감고 나니 시원하고 기분이 상쾌하다며 모두 좋아라하는 모습이다. 행사를 행사로 치르기보다 아이들이 즐기면서 의미를 알아가는 것에 흐름을 맞추다보니 점심시간과 낮잠시간은 다른 날보다 늦어지고 교사들도 아이들의 흠어진 동선을 살피고 챙기느라 여느 날 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로 하긴 했으나 무엇에 좀 더 집중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의 지점들이 공유되어져야하는 시간이기도 했다.

낮잠시간에 '익모초와 머리에 입 달린 괴물' 이야기를 들려주니 익모초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다고 하여 낮잠 자고 일어나 터전 화단주변에 있는 익모초 찾기를 했다. 쭉갓모양 비슷한,,,,익모초를 맛보기 전에는 그 맛이 어떨까? 매우 궁금하여 기대에 찬 모습들이었는데 간식시간에 인절미 먹기 전

에 한 모금씩 맛을 보게 하니 그 표정들이란...^^ㅎㅎㅎ 벚꽃샘도 "떡을 부르는 맛"이라며 그 맛의 느낌을 이야기하니 아이들 그 쓴맛을 떡으로 달랜다.

오늘 단오 행사의 하이라이트~ 길놀이가 해바라기터전에서 시작되었다. 올해는 해바라기 아이들이 주축이 되어 길놀이가 이루어져 그 의미가 더 했던 것 같다. 이렇게 스스로 세시풍속의 의미를 챙겨가지 않으면 점점 잊혀져갈 우리의 세시와 절기를 우리의 일상에서 알아가고 즐기고 나누는 노력들이 필요함을 다시금 새겨본다.

단오날이어서 단오날만을 위한 행사가 아니라 그 의미를 담아가고자 단오 이후에도 향주머니만들기, 창포비누만들기, 씨름 등을 마지막 주에 진행하려 한다.

요리 활동과 식단

21일-매실효소

수요일 전체 긴 나들이 확보를 위해 이번 달부터 매월 넷째주 금요일 1회로 요리활동 횟수가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시절기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매년 구매해 온 조합원택 매실 구입이 힘들어 다소 구입가 비싸지만 유기농 매실을 푸른 평화에서 구입했다. 알이 굵어서 살구 같다는 이야기도 했다. ^^

작년에는 30kg을 준비했는데 올해는 40kg으로 훨씬 많이 준비했다. 매실 효소를 아이들이 어찌나 좋아하는지 얼마 전까지 나들이, 오전 차 마시기에 거의 매일 효소를 먹다보니 이젠 조금밖에 남지 않아서 요리나 간식 음료로 사용하려고 아껴 먹고 있다.

활동 하루 전, 도착한 매실을 그날 주방아마를 해주신 준서 어머님께서 깨끗이 씻어 물기가 잘 빠질 수 있도록 소쿠리에 받쳐 주셨다. 이번 활동은 매실이 빨리 익음에 따

라 요리활동 일정도 변경되고 아이들 일정과도 맞추려다 보니 6세, 4세 방이 먼저 매실 꼭지를 떼고, 동량의 설탕을 켜켜이 담아 맨위를 덮어주었다.

설탕의 달콤한 맛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아이들이 손에 묻은 설탕을 빨아 먹느라 정신 없었다. 5세는 루다네에 마실 다녀와서 늦게 낮잠을 들었는데도 간식 시간 전에 일어나 피티팬 샴이 매실을 방에 가지고 가서 꼭지를 떼었다. 역시나 알이 굵어서 짧은 시간 안에 끝낼 수 있었다. 7세 선화통합 후 단오날 향주머니에 사용할 재료를 구입해야 했던 관계로 시내까지 다녀왔다. 오후간식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 들어와 늦은 간식을 먹고 남겨둔 매실의 꼭지를 떼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누군가가 꼭지를 왜 제거해야 하냐고 물어보아서 꼭지가 들어가면 신맛이 나고 먼지도 많이 쌓이고 잘 씻기지 않는 부분이라 반드시 제거해야한다고 알려주었다.

7세의 형들답게 빠른 시간에 꼭지를 따고 한 번씩 번갈아 가며 설탕을 넣었다. 형들도 손에 묻은 설탕 빨아먹기에 정신이 없었지만, 동생들과 달리 바닥에 떨어진 설탕을 청소 하자는 말에 바로 청소 도구를 가지고 와서 바닥을 쓰는 모습은 참 대견했다.

주방에 4개의 유리병에 담아 두었다가 가끔씩 저어 주며 설탕을 녹여 주고 효소 되길 기다릴 것이다.

오전새참-

아이들은 다른 잼보다 블루베리 잼을 굉장히 좋아한다. 효소로 만든 플레인 요구르트에 보라색 블루베리 잼을 넣어 맛있게 잘 먹었다. 처음으로 준비한 삶은 계란!! 죽이 아니라서 좋아하는 아이들이 많았다. 윤서는 알을 낳는다고 가지고 놀고, 노른자는 껍질해서 먹기 힘들다고 매실차 마신 컵 속에

두고 사라진 아이들도 있었다ㅠㅠ 쇠고기죽 - 벚꽃샘 대신 온 대체 교사의 칭찬의 말(어떻게 이런 맛이!!) 흑임자죽!! 검은색이라 거부감을 보이는 아이들이 많았지만 검은색은 우리 몸에 좋은 거라며 다독이며 먹이고, 김밥을 준비하고 남은 볶은 김치를 이용해서 김주먹밥을 만들어 주었더니 또 다른 맛이라며 잘 먹었다. 자주 먹는 주먹밥이지만 후다닥 먹고 놀러갔다.

이번 달도 일찍 응원하면서 약간의 간식거리 빵과 찐감자를 준비해 와서 함께 나눠 먹고, 준비된 간식도 잘 먹었다.

늦게 응원해서 간식이 없을 경우가 종종 있으니 간식시간(9시20분)에 맞춰 아이들을 응원시켜주세요.

점심

아마들이 준비한 연합나들이 점심도시락 너무너무 맛나게 잘 먹었습니다.

달콤 짭조름한 우영반찬은 매번 준비해도 잘 먹고 미나리는 이제 역세지는 바람에 삶아도 질겨서 먹기 힘들어 한다. 건더기를 잘 먹지 않아서 1봉지 사용하던 콩나물국을 2봉지 준비해서 국을 끓였더니 더 구수하고 잘 먹었다. 구워진 훈제오리, 피망, 파프리카를 함께 준비했더니 나들이 갔다 들어오며 좋은 냄새가 난다며 주방부터 들어온다. 새우젓을 이용해 두부새우젓국을 만들었다. 된장국도 잘 먹는 편인데 이 국 역시 맑고 깨끗한 맛이 참 시원했다. 특히 도담방에서 인기가 좋았다. 시금치의 단 맛 철이 지나갔다. 야채 위주인 반찬에 요즘 들어 시금치마저 맛이 없어서 아이들이 먹기 힘들어한다. 참기름이랑 참깨를 듬뿍 사용하는데도 맛이 떨어진다.

텃밭에서 적은 량이지만 조금씩 수확한 상추쌈을 종종 먹고 있다. 고추도 모아서 1개씩 먹이는데 그 중에 영윤이가 먹었던 작

은 고추가 매워서 애를 먹었다. 계란말이를 주면 잘게 부숴먹는다. 그렇게 하면 양이 많아진다고 하더라ㅎ

오후새참

텃밭에 썩갠이 잘 자라 오징어를 듬뿍 넣어 썩갠전을 준비했다. 처음에는 오징어만 골라서 먹던 아이들이 자신들이 물을 주면서 기른 썩갠이란 것을 알고는 썩갠도 잘 먹는다.

야채를 많이 먹자는 의도에서 준비했던 생당근, 생오이를 생각보다는 잘먹었다.

준비할 때 주방에 들어와서 ‘뭐야? 난 안 먹을래’ 하고 이야기기하지만 샘들과 건강한 얘기를 나누며 잘 먹었다.

두부/양념장 - 간장에 참기름과 깨를 넣어 유장을 준비했다. 고춧가루 넣지 않아서인지 더 잘 먹고 더 달라고 했다.

이번 달에는 유난히 식단 변경이 많았다. 연합나들이 때문에 한번, 사과가 품질이라서 또 한번 식단이 변경되고, 기차 여행 시 김밥 재료 준비 관계로 오후새참이 변경되고, 기차여행 후 늦은 도착으로 떡을 준비하고, 기차 여행 시 오전 새참이 제공되지 않아서 식단을 서로서로 바꾸고...

주방 아가가 준비 하실 때 조금이나마 간단한 식단으로 짜다 보니 부득이하게 식단 변경이 잦았다.

덕분에 현장학교 연수 잘 다녀왔습니다.

씩씩한의 또 다른 모습도 보게 되었고, 주말하루 일상 보고 다음날은 나들이도 함께 가보았습니다. 새로 마련한 터전은 한적한 시골 집 같더군요, 자동차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마음대로 자유롭게 뛰어 노는 넓은 마당도 있고, 특히 오디나무가 있어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번 달엔 상추, 앵두, 이사떡을 부조받아 잘 먹었습니다.

7월 계획

7월 식단엔 시원한 국수랑 제철인 토마토와 감자를 이용해 식단을 운영하려합니다. (토마토로는 스파게티를 만들어 줄 예정입니다 ^-^)

연령별 모임 지낸 이야기

7세- 태권V

1. 집중하기

한 가지 사물이나 흥미 있는 것들에 꽤나 많은 시간을 보낸다. 마른 나무의 속을 보고 “이건 왜 이런 모양으로 되는 거지?”하고 얘기를 하며 계속 속을 판다던지, 물 속에 떨어진 비닐을 꺼내기 위해 오랜 시간 함께 고민하고 방법을 생각해 본다. 목적을 달성한 후에는 환호하고 자랑스러워한다.



이 나무는 왜 이렇게 부서지는 거지? 계속 파보자.

내가 이쪽에서 받칠게,니가 거기서 잡아봐

2. 끊임없는 놀이와 놀이 만들어내기

“별하나 따다가 앵두나무 걸고 떼고 찌고~”, 구슬 따먹기, 비석치기 등 여러 가지 놀이들을 아이들에게 교사가 먼저 보여주면 그 놀이가 어느 장소에서건 보여지고 “우리

~하자.~할 사람 여여 붙어라.”하며 누구든 제안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새로운 곳에 가도 거기에서 재밌게 놀 수 있는 놀이들을 금방 금방 만들어 낸다.



요즘 아이들이 가장 열을 올리며 하는 놀이이다. 비석을 보물 같이 다룬다.

여름이라 바깥에서는 모래놀이를 자주 한다. 성 만들기를 함께 하고 있다.

3. 약전골목 간 이야기

21일 오전부터 바쁘다. 화요시장 건너 월드메르디앙 옆 선화어린이집을 갔다가 놀이터에서 점심을 먹고 조금 놀다가 지하철을 타기 위해 다시 걸어간다. 우리의 주요 교통수단은 튼튼한 두 다리이다. 햇볕 쨍쨍한데 재잘대며 걷는 7세들이 대견하기도 하고 너무 후사(?)시키는 것은 아닌가 싶어 자연드림 음료 하나씩 입에 물고 단오에 쓸 향주머니 속 약재를 사러 약전골목으로 출발한다. 여유로운 태권V들과 긴장감으로 비장함마저 흐르는 나는 지하철을 타러 갔다. 승차권을 직접 찍고 내려가서 기다리는 동안에도 음료수 마시고 빈 통으로 총싸움놀이를 한다.

두 세명 손을 잡고 문이 닫힐라 긴장하며 들어가 자리를 잡고 앉는다. 서로 마주 보고 앉아서도 계속 놀이를 한다. 어느 쪽에 사람이 더 많을까....아싸! 아싸! 우리 쪽이 더 많거든!! 연신 환호하라 그 와중에 바깥도 구경하라 바쁘다. 점점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이 많은 시내라 긴장이 더 된다. 몇 번이나 더

당부를 하고 손을 잡고 출발. 며칠 전부터 혹시나 싶어 신랑에게 시간이 되냐고 물었는데 다행이 나올 수 있단다. 나야 말로 그때 아싸였다!! 태권V도 “벗꽃 신랑 와?” “언제 와?”하며 자꾸 물어본다. 드디어 현대 백화점 앞에서 만났다. 쑥쓰러워하며 숨는 민소. 별명을 지어주자고 하니 치타, 태권V, 벗꽃이니까 나무하면 벗꽃나무 되겠다하며 나무도 있었으나 치타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빠를 것 같아서라나...그래서 내가 앞서가며 치타씨!! 하고 부르니 사람들이 쳐다본다.

역시 시내라 평일임에도 차와 사람들이 많았다. 요리조리 피해가며 걸어가 도착한 곳은 한의학 문화관. 환주는 “우리 양지꽃방 일 때 와 봤었다.”하며 자랑을 한다. 입구에 들어서니 동상이 있는데 남자니 여자니 하며 의견이 분분하다. 찬홍이가 머리 땀은 조각을 보고 여자라 하니 연수가 옛날에는 남자아이들도 머리 땀았거든 하며 바로 반박을 한다. 약탕기 분수 주변을 한참을 뛰어다니다가 조금 앞에 옷놀이판이며 투호, 굴렁쇠, 제기 등이 보이자 우루루 달려가 햇살 내리쬐는 명석 위에 앉아 옷놀이를 한다. 옷이 크니 돌이 두 개씩 들고 던지고 말을 옮기며 노는 모습이 진지하다. 현동이는 굴렁쇠를 치타씨에게 배우더니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연습을 한다. 더 놔두었다가는 종일도 있을 기세였지만 해가 머리 꼭대기에 있어 건강이 염려가 되었다. 나와서 다시 하면 어떨까 하고 이야기를 나눈 후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삼층부터 거꾸로 내려왔는데 삼층에는 대구읍성이 있던 시절 약령시에 대한 모형을 설치해 놓고 텔레비전 등의 영상물로 설명을 해주고 있었다. 옛날 약령시의 모습을 재현해 놓은 모습과 애니메이션에 아이들은 발에 풀 붙은 듯 꼼짝도 않고 몇 번이고 다시 보기를 하였다. 이층은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인데 유료가 많아 할 순 없었

지만 혈압도 여러 번 재고 키,몸무게도 재고 옛날 사람들이 입었던 옷을 입고 왕놀이기도 하였다. 사람이 없었기에 참~다행이었다. 그렇게 구석구석, 이층 야외 약초를 심어놓은 곳까지 둘러보고 근처에 있는 도매상에 가서 천궁,계피 종류를 사고 터전으로 돌아가기 위해 지하상가로 내려갔다. 지하 원형 광장에 아이들을 치타씨에게 잠깐 맡긴 후 물을 사러 갔다 오니 서로 어깨동무를 하며 기차놀이를 한다고 원형을 따라 빙빙 돌고 있다. 참 자기들끼리 재밌게 잘 논다. 치타씨와 안녕~---하고 다시 긴장 모드로 들어갔다. 지하철 안에서도 마주앉아 가위 바위 보를 하며 몇 번 이겼는지 손을 꼽으며 논다. 시끌시끌해서 조금만 작은 소리로 얘기하자로 했더니 할아버지께서 어디 요즘에 아이들 소리 듣기가 쉽냐고 웃음소리가 얼마나 좋냐며 낱두라고 하신다. 터전에는 네시 반 넘어 도착했다. 밖에 나가 놀 시간이 조금밖에 없다며 탄식을 하는 태권V. 삶은 감자도 후다닥 먹어치우고 바깥으로 달려간다.



야~~ 지호 온다^^ 규언이가 창으로 지호가 응원하는 모습을 보고 이야기를 하자

아이들이 지호를 반겨주러 현관으로 달려갔다. 지호를 반기러 간 윤아가 “어서와. 지호야” 하며 반가움의 인사를 먼저 전하니 지호의 약간 머쓱함도 이내 봄 눈 녹듯 사라지고 이내 아이들과 어울리는 모습이다. 한 달 동안 통통했던 지호의 볼 살도 내리고 키도 부쩍 자랐다. 이제 아프지 말고 우리랑 더 즐겁게 놀자~~^^

연령별 모임을 6월 첫 주(한 주) 동안 진행하면서 여러 긍정적인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다. 계속적으로 놀이가 이어지고 아이들끼리 놀이가 더 확장 되는 모습이 관찰되었고, 그 속에서 아이들의 상호작용과 친밀감이 더 생기며 다음날을 더 기대하는 모습들이 보였다.



6세 상어방

아이들- 김윤아. 김지호. 성도연. 이윤서. 이하람. 장문경. 최영윤. 송준서. 이규언

수하네에서 주신 앵두도 있고 오랜만에 요리활동으로 '수박화채만들기' 를 했다.

요리활동은 아이들이 언제나 즐거워하고 재미있어 하며 자주 하고 싶어 한다.

터전오후 간식으로 앵두를 넣고 화채를 만들자고 하니 모양찍기를 하면서 먹고 싶었을 텐데 참는 모습에 작은 감동을 느꼈다. 모양을 찍어내고 남는 부분을 먹고 준서와 하람이, 문경이는 상어이빨모양이라며 상어 놀이를 즉석에서 만들어낸다.

나들이에서는 거의 다투는 일이 없고 아이들의 흥미가 다양하여 놀이도 다양함을 보인다. "자리를 들고 가서 나들이 가서 쉬자"는 아이들~ 산딸기언덕 가는 동안 햇볕이 더웠는지 자리를 펴서 줄지어 나누어 들고서 자리를 지붕 삼아 햇볕을 피하는 귀염둥이들이다.

터전 안에서는 가끔 다투기도 하고 편을 가르기도 하지만 이내 서로의 불편함을 이야기하고 조율되지 않을 때는 도움을 요청하면서 맞추어 가는 모습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기특하다. 하람이와 준서는 이제 터전에 거의 적응한 듯 보인다.

7월에는 더욱 신나는 나들이와 놀이로 이어지도록 아이들과 연구하고 만들어가야겠다.^^

5세 보석방

루다에게 "터전에서 누가 제일 좋아?"하니 승주랑 성희란다.

은준이에게 "내가(피터팬)좋아 채희가 좋아?"하니 "아~몰라~묻지마" 한다. 귀여운 것들!

지금껏 보석방은 터전에서 또는 모래놀이나 텃밭, 가까운 놀이터나 산 나들이 위주로 다녔다. 어디로 될지 모르고 어떠한 활동을 하더라도 이내 동서남북으로 흩어지는 아이들을 모으느라 시간만 보냈다. 보석방 아이

들에겐 자기네들끼리 부딪히고 놀고 웃고 하는 즐거움이 그 어떤 활동보다 더 재미있고 중요하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다. 그래서 날이 점점 더워지니 그들이 많은 산 나들이 위주로 다녔고 앞으로도 그러할 계획이다. 며칠 전, 루다모의 초대로 루다네에 다녀왔다. 먼저 루다집에 가서 오미자차로 목을 축이고 루다 장난감을 휩쓸어주고 근처 봉무공원으로 나갔다. 차에서 내려 "뚝자리 들어줄 사람~?"하니 다들 서로 들겠다고 난리, 결국 눈물까지 보이는 아이들. 다음엔 더 많은 집을 챙겨 하나씩 나눠줘야 하나?!

도착하니 우리말고도 여기저기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에서 소풍을 왔다. 햇볕이 따갑기도 하고 배가 고프다는 아이들이 있어 나비 생태관을 지나 정자에서 점심을 먹기로 하고 걸어 올라갔다. 굳이 짝손을 하지 않아도 인도에서 줄 맞춰 잘 올라가는 아이들. 터전에서 나들이 출발할 때와는 사뭇 다른 모습들ㅋㅋ가는 길 큰 저수지에서 수상스키를 타는 아저씨가 있어 아이들 모두 두 눈 휘둥그레 구경하고, 손 흔들어주는 아저씨.

바람도 살랑살랑 길 양쪽으로 꽃과 풀들이 많아 아이들의 관심을 끌기엔 좋았다. 그렇지만 배고픔 앞에선,,,정자에 도착하자 와우~!큰 애벌레 조각상이 딱하니 있었다. 다들 애벌레 등 위에 오르락내리락. 그러는 사이 자리를 펴고 점심을 준비했다. 나비가 싸준 넉넉한 주먹밥과 루다모가 준비해 주신 샐러드와 과일들, 은준모가 구워주신 쿠키까지! 날도 더운데 남길 순 없고 다 먹을 수 있을까?내심 걱정했는데,,웬걸 먹고 놀고 먹고 또 와서 먹고, 잘 먹는 아이들 덕분에 오는 길이 가벼웠다^^

점심을 먹고 바로 아래 나비 생태관으로 갔다. 우리만 있는 게 아니니 모두 조용히 쉴!하고 들어가자 하니 이내 몸을 낮추고 쉴!하는 아이들.

꿀통 옆길을 지나가며 벌들이 깎 수 있으니 조용하자 했던 게 생각난다. 야외로 나오니 또 다른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점점 크는 모습들이 보여 뿌듯했다.

내려오는 길엔 저수지 가까이로 가 자기 얼굴보다 큰 돌을 던지며 좋아라 하는 하선이와 아차하는 순간 다들 양말신고 물에 들어갈 때 양말 고이 벗어 들어가는 은준이. 나뭇가지 들고 낚시하며 물고기 잡았다고 나뭇잎 건네는 수하까지. 모두들 즐거워하고 들떠있어 나 또한 흐뭇했다. 혼자 나왔다면 힘들었을 하루였지만 루다모와 돌이어서 힘이 났고 즐거워하고 신난 아이들의 표정에서 기회가 된다면 또 오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기회들을 보석방 아이들에게 또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4세 도담방

덥고 습한 기운이지만 가끔씩 하늘은 구멍이 뚫린 듯 시원한 빗줄기를 쏟아내어 가늘고 긴 빗방울이 춤을 추듯 어지럽게 길바닥에 뿌려주는 6월이다. 산나들이를 갈때면 바닥에 흙먼지가 심했고 산딸기를 자주 따먹었고 운이 좋은날은 살구와 매실도 따서 맛 볼수 있었다. 들꽃과 지렁이,달팽이,딱정벌레,

무당벌레를 돋보기로 즐겨 봤었다. 예전과 달리 가뭄으로 냇가에 개구리를 많이 보질 못했다.

아이들은 차가운 음식을 원하고 주로 아이스크림을 먹었다고 자랑한다. 31개월에 접어든 유채는 과거와 달리 자기 주장을 분명히 표현하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싫다고 하면서 밀어내는 힘이 강해졌다. 또한 조금만 놀려도 서럽게 크게 길게 울었던 아이가 짧게 울고는 눈물을 닦고 서로 사과하고 다음

놀이에 집중할줄 알면서 다른 친구들도 동생처럼 대하는 모습이 많이 줄어 들었다. 낮잠을 자고 일어나 옷을 입으면서 팬티와 양말도 스스로 신고는 친구들이 하는말을 꼭 따라한다. 그러나 옷은 바구니에 넣는데 양말은 장난감통에 놔둬 오후에 내가 꼭 찾게 만든다. 서연이는 낮잠 잘때 입에 손가락을 갖다대어 만지고 가끔 오줌 놀때 실수로 팬티에 조금 젖신다. 땀을 많이 흘려 물을 두번씩 먹고 잘때도 베게가 흠뻑 젖는다. 밥 먹을 때 나물 반찬이나 고기반찬은 잘 씹지 않으려 하고 밥과 국을 먼저 먹고는 반찬 나중에 먹는다. 월요일마다 차모뚝할 때 지오와 유채는 늘 아빠나 엄마가 학교 갔다고 한다. 윤아 생일 잔치 때 소현이까지 드레스를 입고 참석했는데 그 모습이 이뻐는지 지오가 계속 쳐다본 후 내게 묻는다.

“누구야. 소현이 맞아. 소현이가 왜 입었어. 왜 저기에 앉았어”평소 봤던 모습보다 이쁜 아가씨 모습이였다. 매호공원으로 놀러 갔던 날 동네 아줌마가 백일 된 아기를 데리고 산책 나왔다가 우리랑 같이 놀았다.


아줌마가 “동생 있는 사람 있어”하니까. 모두 아무 말이 없다. 또다시 아줌마가 “언니 있는 사람 있어”하니까 소현이랑 서연이, 유채가 손들고 영현이는 안 든다. 영현이는 “언니 없어”라고 내가 물어보니까 “아니 언니 있어”하면서 고개를 흔든다. “유채는 왜 손 들었어. 집에 가면 진짜 언니 있어”하니까 “응 있어”한다. 늘 터전에 언니들과 손잡고 어울리더니 혼란스러운가 보다. 나들이 길에 영현이는 자주 돌을 줍고 나뭇잎을 따서 소중하게 꼭 쥐고 와서는 터전앞에서는 모두 버린다. 그래서 발걸음이 느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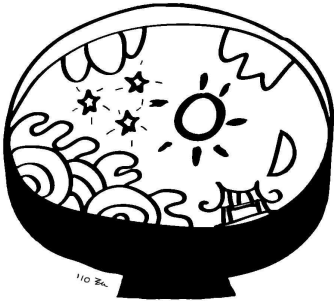
여전히 소현이는 위험하게 보이는곳과 높은곳에 올라가서 매달리고 건너뛰기를 즐긴다. 이를 지켜보는 지오는 늘 멋지다고 감탄을 한다. 돌아오는 나들이 길에서 소나기

를 만났는데 아이들은 더 천천히 걷고
얼굴을 하늘로 보면서 내리는 빗줄기에
즐거워 한다.

3째주로 접어들면서 무더운 날씨로 인해
물도 더 많이 찾게 되고 낮잠을 안 자던 지
오와 소현이까지 쉽게 잘 잔다. 소현이는 목
에 난 아토피 증세가 많이 호전되어 잘 안
긁게 되었고 약을 바를때마다 친구들에게
자랑한다. 아이들 입맛에 맞는 짜장밥이 나
오면 지오와 소현이는 두그릇씩 먹고 다른
아이들도 평소보다 더 많은 양을 먹는다.
그렇게 먹은날은 지오와 영현이가 오후내내
방구를 자주깎는다. 특히 영현이는 낮잠 때 틀
어주는 '방구 옛이야기' CD 를 들을 때면 자주
방구를 붕붕하고 깎는다. 자주 틀어주니까 이
제 내용을 다 알고 방구소리 대목이 나오면
힘을 쥐서 끼는것 같다. 내가 “누가 꺾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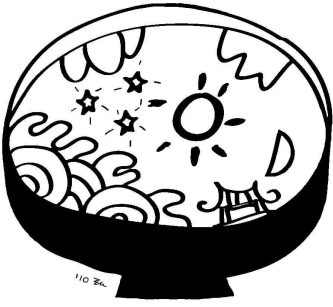
면 부끄러워 하면서 이불로 얼굴을 덮고는
웃는다. 옆에 친구들도 따라 웃는다. 영현
이와 소현이가 아카시아 잎으로

유채머리를 양쪽에서 잡고 파마를 자주
해준다. 유채도 좋다고 싱글벙글이다. 비가
오는 흐린날에는 일찍 잠들고 길게 잘려고
하는것이 평소보다 외부소리가 조용함이라
여겨진다. 물감을 구슬에 묻혀 종이에 그림
그리기를 했었는데 지오는 손에 묻는 물감
이 더럽고 안 지워진다고 울면서 얼른 손을
씻으려 간후 돌아오질 않았다. 영현이가 소
변을 본 후 변기 물내리는 밸브를 잡다가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지면서 얼굴과 부딪혀
눈밑에 멍이 들었다. 바닥에 물기 제거를 수
시로 신경써야 할 것 같았다. 



씩씩한 맛있는 7월 식단

| | 월 | 화 | 수 | 목 | 금 |
|------|--------------------------|--------------------------|--------------------------------|-------------------------------|--------------------------|
| | 2 | 3 | 4 | 5 | 6 |
| 오전간식 | 시금치죽 | 빵.미숫가루 | 조랭이떡 | 삶은계란,매실차 | 누룽지탕 |
| 점심 | 쇠고기국 콩조림 멸치대추볶음 | 뼈다귀해장국 도토리묵무침 버섯볶음 | 김치볶음밥 계란국 | 순두부찌개 호박나물 깻잎나물 | 들깨미역국 닭강정 오이피클 |
| 오후간식 | 청포묵채국 | 방울토마토 | 잔치국수 | 만두국 | 문환주생일터 |
| | 9 | 10 | 11 | 12 | 13 |
| 오전간식 | 흑임자죽 | 빵.오미자 | 날치알주먹밥 | 과일 | 우유씨리얼 |
| 점심 | 두부새우젓국 우엉조림 김구이 | 근대된장국 메추리알장조림 오이무침 | 카레라이스 | 복어미역국 돈까스 양배추샐러드 | 육개장 가지볶음 두부조림 |
| 오후간식 | 김치전 | 두부간장 | 오이,당근 | 조승주생일터 | 감자전 |
| | 16 | 17 | 18 | 19 | 20 |
| 오전간식 | 새우스크램블 | 수제비 | 연두부,양념장 | 멸치주먹밥 | 딸기요플레 |
| 점심 | 이육산장국 돼지버섯불고기 양배추쌈 | 콩나물국 파프리카버섯볶음 계란말이 | 삼계탕 | 호박된장국 돈육장조림 상차겉절이 | 참치미역국 오리훈제볶음 콩나물무침 |
| 오후간식 | 핫케익 | 김치잡채 | 과일 | 스파게티 | 박성희생일터 |
| | 23 | 24 | 25 | 26 | 27 |
| 오전간식 | 누룽지탕 | 유부초밥 | 쇠고기야채죽 | 토스터 | 미숫가루,토마토 |
| 점심 | 홍합미역국 쇠고기장조림 숙주나물 | 순두부국 동태전 청포묵무침 | 볶음밥 | 오징어볶음 상차겉절이 | 참치김치국 진미무침 콩나물무침 |
| 오후간식 | 이상화생일터 | 호박전 | 우뭇가사리콩국 | 찐감자.소금 | 찐옥수수 |
| | 30 | 31 | 물 | | |
| 오전간식 | | | | | |
| 점심 | 7/30--8/5 여름방학 | | 7/7 소서 7/15 백중일 7/17 제헌절 | 7/18 초복 7/22 대서 7/28 중복 | |
| 오후간식 | | | | | |



해바라기 맛있는 7월 식단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2 | 3 | 4 | 5 | 6 | 7 |

점심

| 간식 | 잔치국수 | 찐만두 | 샌드위치 | 핫케익 | 빵 미숫가루 |
|----|------|-----|------|-----|--------|
| | 9 | 10 | 11 | 12 | 13 |

점심

| 간식 | 스파게티 | 궁중떡볶이 | 유부초밥 | 과일요플레 | 냉라면 |
|----|------|-------|------|-------|-----|
| | 16 | 17 | 18 | 19 | 20 |

점심

| 간식 | 떡김말이 | 두부김치 | 김밥 | 오징어부추전 | 감자구이 |
|----|------|------|----|--------|------|
| | 23 | 24 | 25 | 26 | 27 |

점심

| | | | | | |
|--|--|--|--------|-------|------|
| | | | 소고기국 | 미역국 | 복어국 |
| | | | 메추리알조림 | 돈불고기 | 계란말이 |
| | | | 콩나물무침 | 상추 쌈장 | 우엉조림 |

간식

| 간식 | 자장면 | 삼계탕 | 프렌치토스트 | 안혜준생일 | 피자 |
|----|-----|-----|--------|-------|----|
| | 30 | 31 | | | |

점심

| |
|------|
| 여름방학 |
|------|

간식

| |
|--|
| |
|--|

씩씩한 터전 소식

이옥희(씩씩한 김지호엄마)

1. 썩썩이들 기차 여행 다녀왔어요~

이른 9시까지 등원...

아이들은 흥분되고 선생님과 차량아마, 동행아마들은 아이들의 안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경산역으로 출발했다.

일찍부터 준비한 덕에 여유 있게 밀양발 기차를 기다렸고, 선생님들의 염려를 알았는지 아이들은 각방 선생님을 기준으로 줄도 잘 서주고 말도 잘 들어 줬다.

기다리던 기차를 타자 의젓하게 각자 승객의 역할을 다 한다^^

신문 읽는 아이, 창밖 풍경 구경하는 아이, 벌써 졸고 있는 아이^^, 친구와 장난치는 아이, 물 마시는 아이들

기차는 30분가량 지나 밀양역에 도착.

작은 밀양역은 우리 썩썩이들이 익숙한지 편안하게 맞아 주었다.

도착해서 화장실도 다녀오고 오전 간식을 먹었다. 소보루빵과 우유.(주하가 엄마에게 끝까지 먹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아침 간식은 먹은 것이 분명하다. 사진으로도 남겨져 있으니ㅎㅎ)

날씨가 부조한 덕에 선선한 바람과 구름 낀 하늘은 나들이 가기에 딱이었다.

밀양역에서 우리가 놀 공원까지 걸어서 30분 정도..

가는 길에 낮은 담 넘어로 보이는 알록달



록 맛있어 보이는 여러 작은 과일들과

이쁜 꽃들..우리 썩썩이들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었다. 만져보고 따 먹어보고 냄새 맡아 보고^^ 가는 길 가장 멋진 풍경은 노란 보리밭.....노란 보리가 바람결 따라 이리 저리 몸을 휘저었고, 아이들은 길고 좁은 다리를 건넜다. 고디잡는 아줌마 아저씨께 인사도 하고, 물어도 보고, 맑은 시냇물 물고기도 구경하고, 그러다 고 작은 몸 떨어질까 샘들 가슴은 조마조마..

길고 좁은 다리를 건너 자갈길을 지나 우리를 맞아 주는 넓은 공원잔디밭..

아이들도 달리고 아마도 덩달아 신나서 달린다.

넓은 곳이라 아이들은 제 각각 끼리끼리 여기저기 어울려 논다.

무조건 달리는 아이, 운동기구에서 몸 푸는 아이^^,

도착해서는 선생님들이 준비한 밧줄로 줄다리기도 하고, 아이들은 트랙을 돌기도 하고, 어린연령 아이들은 운동기구를 타며 언니 오빠들이 노는 걸 구경하고 따라 하기도 했다.

아이들과 선생님과의 줄다리기는 벚꽃이

사진을 찍기 위해 빠져서라기 보다 아이들이 눈에 힘을 주고 손에 힘을 모아 선생님들을 거뜰하게 이겨버렸다^^

6,7세 여자아이들은 자기들끼리 놀이를 만들어 내며 놀았고, 5세 여아들은 5세끼리 분위기를 만들며 놀았고 어린 도담방은 각자 잘 놀고^^

남자 아이들도 온몸으로 노는 아이들, 공룡뼈를 찾아 탐구 하는 아이들, 돌맹이를 주어다 퍼즐을 맞추는 아이들, 곤충에 관심이 있는 아이들은 곤충 잡으러 봉지를 달라고 주문하기도 하고, 거기에서 선생님들의 개별적인 특성들을 살려 아이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려 놀았던 기억이 좋다. 추가로 나비샘이 함께 해줘서 대표 어머니가 함께 한 것 같은 느낌^^*

우리 씨씨이들은 그곳에서 원래 있었던듯한 하나의 풍경처럼 놀다 온듯 했다.

특별한 사고 없이 잘 다녀왔고 좋은 날씨에 좋은 추억 사진 한장 찍어 온듯하다.

2. 개인 에피소드

준서와 주하는 공룡뼈 화석(제 생각엔 누군가 복날 먹은 아구 뼈다귀 같았는데..^^*)을 찾아 황홀해 했다.

하람이와 지호, 현동이는 메뚜기를 찾아 헤매고 잘도 잡아 봉지, 통등에 넣고 신기해 했으며, 오빈이의 돌 퍼즐..^^ 둘로 쪼개진 돌을 줍고 여러 돌들을 주워 여러 모양 만들고 노는 모습이 설치미술가 같은 포스가 나며 멋있었다. 오빈이가 다른 놀이에 열중하는 동안 서영이가 그 돌로 한 30분은 혼자 잘 놀기도 했다.

달리기 경주에 목숨 거는 7세들, 아~~그날 따라 유난히 은준을 챙기는 주하의 애정 가득한 말투와 행동이 지금 생각해도 웃음

이 난다. 마치 여친을 대하듯 아끼는 모습이 넘 이뻐 보였다.

선생님들 또한 편안한 모습으로 아이들과 함께 잘 놀아 주시는 모습이 보기 좋았고,

넉넉히 준비한 맛있는 김밥을 먹으며 열심히 놀고 돌아 오는 길도 재밌기는 마찬가지 쥘린 시간 미리 넉넉하게 도착한 기차역에서 자리 깔고 누워 쉬는 아이들, 간식 먹는 아이들, 아직도 놀이에 목이 마른 아이들은 여전히 놀고..

즐거운 추억들 각자 가방에 가득 넣고 돌아온 기차 여행이었다.

수고해주신 선생님들, 아마분들께 감사드립니다.

3. 가슴속에 담아둔 각방 아이들의 최근(?)애정 전선

선생님들이나 아이들에게 취재를 한다고 했는데 매번 물을때 마다 좋아하는 아이가 달라지는 아이들이 많다.

그래서 제목에 최근~ 을 넣은 것이니....귀댁 자녀들의 최근 동향과는 조금 틀려도 이해해 주시리라 생각 하며 글을 적습니다.

방 상관없이 취재순으로 나열하며, 혹시 빠진 아이들은 딱히 이성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경우 또는, 눈에 띄게 좋아함을 표시하지 않아 각방 선생님의 눈에 띄지 않았거나, 아님 지호엄마가 한명도 빠짐없이 취재하기는 곤란하여....빠진 것이니 그것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또한 본의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취재하는 지호 엄마의 눈치를 보며 지호를 좋아한다고 거짓부렁으로 말한 누구누구도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 누구 누구는 아래 글을 읽어보시면 나옵니다.ㅋㅋㅋ

우선 도담방의 유채는 올해 초 등원 후부

터 오빠들의 급관심을 받아오다 최근 같은 방 지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 심지어 같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오빠가 도와 줄까~~'라는 말을 유행 시키며 애정을 과시하고 있고, 아라방의 문경이는 젠들한 행동과 말로 같은 또래 윤아, 도연, 지호의 사랑을 모두 받고 있는 중이고,

올해초부터 응원하고 있는 서영이는 크게 울다가도 찬종이가 손을 잡으면 선생님도 말리지 못하는 울음을 뚝 그칠 정도로 찬종이를 좋아하고, 현동이와 혜승이는 같은 또래이면서 항상 놀이 중 티격태격하면서도 서로 애정을 과시하는 사이라고 벚꽃에게 취재를 했는데, 혜승이에게 살짝 물어봤을 때는 찬종이를 좋아한다고 얘기를 해서 혜승이의 행동이 헛갈리나 찬종이는 많은 못 여성들의 사랑을 받지만, 본인이 정작 좋아하는 아이는 혜승이랍니다~~~제 생각으론 혜승이가 둘다 맘에 들어 헛갈리고 있는건 아닐까~~생각이 듭니다.

환주는 말없는 수하 뒤에서 흑기사 역할을 해주며, 수하도 그런 환주를 따른다는 것~~

얌전하지만 뚝 부러지게 말하는 소정이는 주하와 오빈이가 '결혼할꺼야'로 이미 점찍어 뒀지만, 정작 소정이는 시훈이와 찬종이를 좋아한다는 안타까운 사실~~~~~

씩씩이 영윤이는 누굴 좋아하냐는 물음에 얼렁뚱땅 지오, 유채, 찬종이를 좋아한다고 말하면서, 남자아이들 이름 사이에 유채를 넣어 말하는 걸보니 유채를 좋아하는 것이 분명하고, 최근 부쩍 튼실해지고 있는 시훈이는 제가 취재할 때는 특유의 해맑은 얼굴로 '나~ 지호 좋아해~~'하면서 제 기분을 좋게 해주더니 다시 알고 보니 채원이를 진심으로 좋아하는답니다..(가끔 심심할 때 제가 지

호에게 터전 소식을 아이들 눈으로 들어 볼 때가 있는데 예~전에 '지호야~ 터전에서 누가 제일 뽕쟁이야~?'했더니 '시훈이 오빠~~~' 라고 한말에 제가 예상외에 답변에 깜짝 놀랐을 때가 떠오르더라고요~ㅎㅎ)

시훈이와는 달리 규언이는 처음 인터뷰시 제가 지호를 옆에 두고, '규언아~~^^터전에서 여자 친구들 중에서 누가 좋아~지호 좋아~?'했더니 지호 눈치를 보면서 대답은 못하고 난처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가만히 있는 텃밭 풀들을 건드렸다. 그래서 지호가 없을 때 다시 살짝 물어 봤더니 '난 지오가 좋아~'라고 했었는데 잠시 후 다른 공간에서 유채가 좋다고 솔직히 고백했다.

올해 터전에 들어와 잘~적응하고 있는 준서는 같은 또래 윤아를 맘에 들어한다는 또 하나의 정보...

얼마전까지만 해도 은준이는 같은 또래 채희와 손을 꼭~잡고 다니면서 뽕뽕도 하는 등의 애정을 과시 했다가 최근 채희 앞에 일부러 성희의 손을 잡고 와서 질투를 유발하는 행동을 보인다고 한다. 은준이의 심경이 궁금한 은준 엄마가 왜 그런지 알아본 결과 은준 왓 '힘들다~'라고 답변을 하더라고, 은준 엄마 해석은 은준이는 워낙 깔끔한 성격인데 채희는 은준이가 싫어하는 모래놀이를 너무 너무 좋아하니 한동안 은준이가 그렇게 싫어하던 모래 놀이도 같이 해주더니 힘들다고 하는 것 같다고 정리...채희의 심경이 궁금했으나 최근 지호 하원 시 부딪혀지지 않아 알아보지 못한 것이 아쉽다.

이밖에 동성을 좋아한다는 아이들은 승주 외에 다수가 있었고, 연수 같은 경우에는 좋아하는 남자 친구는 없다고 딱 부러지게 답변해줬다.

이런 질문의 답변을 해주는 아이들을 보면 그 답변안에 아이들의 성향이 보이는데 하여 너무 재미있었고....

참고로 지호는 최근 누굴 좋아하는지의 물음에 '나? 당연히 문경이 좋아하지~~~' 하더니 똑같은 당일날 '엄마 하람이한테 말할 때는 얼굴이 빨개져~~~' 라고 말하길래 '지호야 그럼 니 문경이 좋아 하는게 아니고 하람이 좋아하는거 아니가?' 했더니 '아니지..아까 내가 문경이 좋아 한다고 말했잖아~~~'라고 하면서 한동안 화를 내는 것이었다...

결론적으로 아이들의 애정 전선이라는게 그때 그때 마다 수시로 바뀐다는 사실.....ㅋㅋㅋ

개인적으로 조사를 하면서 섭섭했던 점은 지호를 진심으로 좋아해주는 남자친구가 없다는 사실이 소실적에 지호엄마를 닮지않은 지호가 안타까울 따름이었다.. (믿거나 말거나~)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터전소식을 마감합니다.

두달여 동안 지호를 터전에 보내지 않다가 6월 둘째주 부터 지호를 등원 시키다 보니, 그동안 터전의 많은 소식들을 듣지 못했고, 함께하지 못해 아쉬웠는데 터전 소식을 적으며, 그래도 아이들 한명 한명과 대화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에 기차여행 스케치를 도와 주신 윤아엄마에게 감사드리며, 한달 동안 수고하신 터전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해바라기 터전 소식

정인배(해바라기 정석영아빠)

1. 조출하지만 환상적인 훈제요리 파티(6/2)

찬희네와 해바라기 터전 주말청소를 함께 한 후에 여러 가족들과 재미있는 모임이 벌어졌습니다. 주말청소가 끝날 쯤 찬희 아빠께서 비장의 무기 같아 보이는 이상하게 생긴 통들을 차에서 내리고 훈제요리를 위한 준비 작업에 해바라기 터전 전체가 갑자기 분주해졌습니다.

미리 준비해 오신 길게 썰은 돼지고기 한 토막과 발가벗은 닭 한 마리에 마늘 간장으로 만든 소스를 바르고 양념이 고기에 배도록 약간의 시간을 주는 동안 마당에서는 시커멓고 이상하게 생긴 통을 풀어 알맞은 자리에 위치시켰다. 숯으로 만든 갈탄을 주위에 두르고 중앙에는 고기 잡내를 없애준다 는 맥주를 알루미늄호일 쟁반에 담아 넣어 훈제 만들기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마친 다음, 드디어 부탄 개스버너로 숯으로 만든 갈탄에 불을 붙여 양념이 밴 돼지고기와 닭을 불에 직접 닿지 않게 중앙에 위치시킨 후 약간의 향신료를 뿌리고 뚜껑을 닫고 온도계를 쫓아 내부온도를 점검하면서 약 2시간을 기다렸습니다.

훈제가 완성될 동안 소시지를 숯불에 구워 먹으면서 가벼운 맥주와 막걸리로 목을 축이고 있는데 해바라기 어린이들이 우루루 몰려들어 안주로 구운 소시지를 순식간에 해치우고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뚜껑을 여는 순간 온몸의 오감을 통해서 전해지는 맛나게 생긴 훈제된 고기의 모습에 감탄이 절로 흘러 나

왔습니다.

노랗게 익어 소스와 고기의 특유의 냄새에 어우러진 숯의 향기에 황홀할 지경이었는데 맛또한 감칠나게 좋길하여 아무리 먹어도 느끼한 느낌이 없는 이때까지 먹어본 최고의 훈제요리였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훈제요리를 두고 혜준이 아빠, 수하네, 소정이 아빠, 석영이네, 이 모든 준비에 수고하신 찬희네 가족이 모여 즉석에서 이루어진 준서의 요요 모기를 감상하면서 초여름의 밤을 행복하게 보냈습니다.

2. 신규 회원 모임 (6월19일)

〈참가 가족〉

씩씩한 : 승주, 루다, 소정, 지오, 준서, 수하네
해바라기 : 강민, 기연, 석영이네(서준이네는 학교시험 출제 관계로 아쉽게 참석 못하셨습니다)

각자 저녁을 해결하고 모임 약속인 8시가 되니 서서히 신입회원 가족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간단한 다과와 맥주를 앞에 두고 그 간의 소회랄까 가벼운 아래의 이야기로 신규들만의 수다가 시작되었습니다.

- 공동육아에 오기 전 기존 어린이집에서 느꼈던 모순된 교육방식에 대한 회의감에서 시작된 공동육아 선택 동기와 공동육아를 시작한 후 변화된 아이들과 부모의 모습들, 그리고 모임에서 사용하는 순수한 말과 글 - 날적이, 들살이 등 - 쓰임의 신선한 느낌들
- 기존회원과의 관계에 조금의 어색함 그리고 신규들끼리의 친화를 위한 마실모임 갖기
- 학기 초반에 신입회원들의 공동체 생활 적응에 필요한 가이드집이 있었으면 하는 점
- 씩씩한은 신입회원을 위한 환영회 같은 것도 있었다나 어쨌다나.. 등등

다음날 출근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10시가 조금 넘어 길지 않은 첫 모임을 마무리 하면서 회장, 총무가 누구며 - 누구를 지칭했는지에 대해서는 회원가입 후에 확인 바람 - 다음 모임은 어디서 할까 등의 이야기가 자연스레 나오는 걸 보니 모임이 한번이 아니라 다음 신규회원이 들어올 때까지 계속 주욱 이어질 것 같은 불길한 예감과 함께 기존회원들께서는 이런 모임을 부러워하면서도 조금은 긴장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3. 단오 행사 (6/22)

아이들이 학교를 파하고 해바라기에 모여 창포 삶은 물에 머리를 감고 목걸이, 부채도 만들고 직접 떡메 쳐서 만든 떡을 동네 분들에게 조금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얼추 6시가 되어 토토로의 팽과리 장단에 맞추어 그간에 조금씩 익힌 아이들과 엄마들의 흥겨운 사물놀이 장단이 온 동네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동안 만든 단오만장을 잘생긴 남자 아이들이 들고 토토로의 팽과리에 맞추어 여자 아이들은 장구를, 그리고 장범이의 징과 함께 하랑이, 원선이 엄마의 신명나는 북소리로 해바라기에서 분위기를 한껏 북돋운 다음 동네를 한바퀴 돌았습니다. 흥겨운 장단소리가 시끄럽게 여겨진 몇몇의 동네분들 때문에 순찰차가 출동하는 번거로운 일이 발생하기도 하였으나 우리아이들의 대담한 연주모습에 맘 속 뿌듯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동현이 아빠의 직업 본능도 유감없이 발휘되었는데 아이들이 길을 건널 때 교통통제, 주민 민원에 출동한 경찰아저씨들의 뒷

처리 등 일반 백성들은 감당하기 힘든 과제를 너무나 손쉽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온 동네를 떠들썩하게 만든 다음 해바라기에 돌아온 우리 모두는 수고하였다고 서로를 위안하면서 그동안 먹음직하게 차려진 돼지족발과 떡에 막걸리로 서로 권하거니 받거니 하면서 새벽2시까지 이어지는 음주본색을 드러내고야 말았습니다.

물론 오늘의 빠질 수 없는 주인공인 아이들의 먹거리도 한상 차려 줬겠지만 메뉴가 무언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평소에 모르고 지나간 단오 행사를 치른 느낌은 우리 아이들의 가슴속에 그대로 남아 훗날 많은 시간이 지나도 오늘의 경험이 소중한 추억으로 아이들 몸속에 각인되어질 것 같습니다.

4. 하랑, 혜준이네 이사 소식

혜준이네는 대백아파트로, 하랑이네는 매호효성백년가약으로 새집을 마련하여 이사를 했습니다.

단지 지금보다 조금 더 먼 곳으로 이사를 간다는 사실만으로 해바라기의 앞날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았습니다. 그 사이 이 분들이 많은 덕을 베풀었나 봅니다.

참고로 이사한 혜준, 하랑이네를 방문하시는 분들은 초인종을 어깨나 머리로 누를 정도로 많은 선물을 준비하시고 행여 한손이라도 비워두고 방문하여 마음의 상처를 주는 우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새로 이사 간 좋은 집에서 많은 행복이 함께하기를 우리 모두 기원합니다. 

정신없이 보낸 하루

이정선(해바라기 박찬희, 씩씩한 박채희엄마)

찬희를 보내는 몇 해 동안 단오 행사를 보아왔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행사로 바라봤지요. 올해는 달랐습니다. 해바라기 연못 한켠에서 자라는 창포를 보면서 단오가 기다려지더라구요.

오후 1시...

씩씩한에서 사용할 향주머니를 만들기 위해 은준 엄마와 제가 재봉틀을 가지고 수성구 주민회 사무실에 모였습니다. 은준아빠와 점심도 못먹고 김밥이며 떡볶이를 사다먹고는 주머니 만들기를 했지요. 그 사이 윤아엄마가 왔어요. 준비성 철저한 은준 엄마가 샘플을 먼저 만들어 와서 그것을 보고 정확한 걸 좋아하는 제가 천을 최대한 사용하도록 길이를 재서 도안을 그렸죠. 그리고는 재봉질을 시작하는데.. 웬걸요. 오랜만에 재봉질을 하니 잘 되지 않더라구요. 이렇게저렇게 해서 3개 시접처리만 했는데 3시. 50개나 만들어야 하는데 어째요. 채원엄마와 환주엄마가 오는 것을 보고는 미안해 하는 마음만 남겨 둔채 서회를 데리러 갔지요.

오후 3시...

서회를 데리고 떡 만들기를 도와주겠다고 해바라기에 왔어요. 아이들은 더운 날씨에 창포에 머리를 감고 있었어요. 포도가 새순 대야에 창포물을 붓고는 아이 하나하나의 머리를 감겨 주셨어요. 머리 감기 싫어하는 아이는 정말 시원하다 한 번만 감아보자 어르고, 자세가 힘든 아이는 앞으로 조금 더 머리를 숙이라 알려주면서요. 그렇게 머리를



photo by 서이영

감고 수건을 하나씩 두르고 마당을 뛰어 다니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귀엽던지요. 포도가 제게도 한 번 감아보라시던 걸 서희 핑계 대며 안 감았는데 백희가 시원해진다고 두 번이나 창포에 머리를 감는 재욱이를 보고 어떤 느낌인지 내년에는 꼭 감아보아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후 4시...

달사탕이 준비해 놓은 주먹밥을 간식으로 먹고는 힘을 내어 떡메치기를 했어요. 전날 세하दान차람 아빠가 급하게 만들었다는 떡판과 떡메가 빛을 발하던 시간이었죠. 아이들은 서로 해보겠다고 길게 줄을 늘어뜨리고 있었어요. 토토로가 손에 물을 바르고 떡을 뒤집어 가면서 아이들에게 떡을 내리치게 했어요. 씩씩한에서부터 몇 해째 해 오던 아이들이라 자세가 다르더라구요. 짹! 짹! 떡메가 떡에 부딪칠 때마다 굉장한 소리가 났어요. 찬우가 내리칠 때는 어디서 저런 힘이 나올까 싶어 깜짝 놀랐다니가요.



photo by 서이영

그런 열기도 한 번 씩 해보고 나니까 스르르 아이들이 어디론가 가버리고 나머지는 어른들의 몫이

되었어요. 강민 엄마와 제가 떡에 물을 발라가면서 길쭉하게 만들어서 고물을 문혔어요. 길쭉한 떡에 고물이 문으면 가위로 먹기 좋은 크기가 되도록 잘랐어요. 포도가 그릇에 나누어 담으면서 이웃에 가져다 줄 아이들을 불렀죠. 어디에 있던지 모르던 아이들이 순식간에 몰려와서 서로 가겠다고 아우성을 했어요. 옆에서 서희는 떡에 바를 물로 물놀이 삼매경에 빠져 있고 손이 모자랄 즈음 병준주하 엄마와 장범장민 엄마가 나타나셨어요.

두 엄마의 출현으로 떡 만들기는 일사천리로 척척 진행되었어요. 토토로가 떡메를 신나게 치고 넘겨받은 떡에 물을 문혀 길게 만들고, 고물을 문혀 가위로 자르고 손발이 척척 맞았죠. 그런데 헉! 너무 잘 맞았나봐요~ 지나쳐서 저녁에 아마들이 칠 떡도 남겨두지 않고 모두 고물을 문혀 버렸어요. 저녁에 떡 메치는 재미도 쏠쏠한데 그게 없어서 아쉬워하신 분들 죄송요~ 그 사이 아이들은 고산초교, 유유계란, 파란문구 등등 이웃에게 떡 접시를 신나게 날랐어요. 비워진 떡 접시에 방울토마토, 과자, 마이쥬 등이 채워져 돌아와 아이들을 더욱 행복하게 해주었지요.

떡 만들던 강민 엄마가 언제 마당에 나갔는지 마당에서는 이미 부채 만들기가 한창이었어요. 한지로 만든 접이식 부채에 붓펜, 먹물, 물감으로 꾸미기를 했어요. 강민 엄마가 한지의 특성을 설명하면서 그림 일부



photo by 서이아빠

분에다가 조금씩 색칠을 해주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니 아이들은 혼자 할 때보다는 훨씬 덜 힘들어하면서

하더라구요. 하기 싫다며 마당에 나오지 않던 하민이를 끝으로 모두 다 예쁘게도 만들었답니다.

오후 5시...

퇴근한 아마들이 몇 분 더 나타나시고 팽과리, 북, 장구, 징 등 길놀이 악기들도 어디서 가져왔는지 시간 맞춰 왔어요. 참 신기하기도 하죠. 어떻게 되는가 싶다가도 모든 게 제 시간이 되면 누군가에 의해서 저절로 되듯이 되는 걸 보면요.

악기들을 본 아이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 악기를 두드려 보기에 여념이 없었어요. 현수막을 찢어서 북과 장구를 아이들에게 매달아 주니 북팀과 장구팀이 저절로 만들어졌어요. 헉 그런데 남자 아이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오롯이 여자 아이들만 악기를 매고 있더라구요. 토토로와 하랑하민 엄마가 장단을 하나하나 알려주었어요. 그에 맞추어 아이들은 얼마나 잘 배워 따라 치던지요. 역시 배우고 싶어 배우는 것은 빨리 배우나 봐요.



photo by 서이아빠

6시...

아이들이 장단 연습을 하고 있던 중 아마들이 하나둘씩 해바라기로 오셨구요. 기다리던 씩씩한 아이들도 선생님들과 함께 길게 행렬을 지어 왔습니다. 마지막 연습으로 장단을 맞춘 후에 길놀이를 시작하였습니다. 만장기, 악기 대열, 손을 잡은 아이와 아마,

목마타고 즐거워하는 아이, 유모차에 아이 태운 아마들의 대열이 줄을 이었지요. 동



photo by 서이아빠

네 사람들이 가게에서 나와서 구경하고 길을 가다가 멈춰서 구경하기도 했습니다. 콩콩랜드 옆 공터에서 한 판 즐겁게 놀았습니다. 그런데 그 옆 빌라 2층에서 시끄럽게 뛰하는 거냐며 항의하는 아저씨도 계셨습니다. 미안한 마음과 함께 즐거움으로 보아주지 못하는 여유 없음이 아쉽기도 했습니다. 씩씩한으로 가서 다시 한판 즐겁게 놀고는 해바라기로 돌아왔습니다.

채희가 힘들다고 울어서 마지막 대열보다도 늦게 미래하이츠에서 해바라기로 오는 횡단보도에서 경찰차 한 대를 보았습니다. 설마... 콩콩랜드 옆 아저씨가 갑자기 생각이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길을 건너보니 경찰 아저씨 두 분과 동현 아빠가 대화를 나누고 계시더군요. 민원이 들어왔다고. 아휴~ 한숨이 나왔습니다.

7시...

해바라기 부엌에서는 길놀이에서 일찍 도착한 아마들이 준비된 족발과 막걸리로 한 상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배도 고프고 분위기는 한껏 무르익었고, 즐거운 뒷풀이의 시작을 뒤로 하고 저는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감기 초기 증상을

보이던 서희는 떡만들 물로 장난하다가 5시 즈음부터 책방에서 홀로 잠들었습니다. 자니까 나올꺼야 하는



엄마의 안이한 마음으로 6시 즈음 채희만 데리고 길놀이에 따라갔습니다. 깨서 우는 서희를 준서 엄마가 보시고 6시 30분 즈음 제 품에 안겨주셨어요. 열이 다더군요. 안고 길놀이를 계속 따라갔습니다. 엄마 품에 서희가 안긴 후로 갑자기 채희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왜 그런지 물었더니 그냥 힘들다~랍니다. 나중에 알았는데 낮잠을 안자서 컨디션이 안좋았다네요. 하나는 안고 하나는 치맛단에 매달아 돌을 데리고 해바라기까지 오는데 기운이 다 빠지더라고요. 후기를 써야하는 의무감에 행사는 다 봐야지 싶었는데, 제 체력이 거기까지였습니다. 제가 기다리던 단오는 그렇게 저물어갔습니다.

뒷풀이는 재미있었나요?

후에 들으니 향주머니는 무사히 다 만들어졌어요. 뒷풀이 후 동현이와 강민이가 지키고 있는 해바라기를 문영영윤 아빠가 정리해 주셨다고 합니다.

해바라기 가든에서의 하루살이

박은빈(씩씩한 이하람엄마)

터전살이 두번째 조에서 운명의 장난으로? 마지막으로 밀려 시행착오를 거의 하지 않고 편안한 터전살이를 하게 되었다. 월요일이 휴일인 황금연휴를 맞으며 모두가 편안한 마음이지 않았을까? 체력적으로 한계를 느낀다는 이 이벤트를 좀 더 잘 보내자고 미리 조장인 곰돌이께서 만반의 준비를 해주었다. 해바라기 터전에서 온종일을 보내본 적은 없어서 좀 더 신선했고, 뭐랄까.. 펜션같은 느낌의 나무 밑의 그림들은 아이들과 함께 어른들도 동심으로 돌아가게 해주는 것 같았다.

저녁 7시 해바라기 터전에 맛있는 냄새^^가 풍겨 주방으로 가보니 토토로가 떡볶이와 부추전을 아주 능숙하게 요리해 놓으신게 아닌가? 아이들이 너무나 좋아라 하는 떡볶이. 토토로표라 더욱 맛있게 먹은 것 같다. 특별한 코너나 이벤트를 만들지 않고서도 훈훈하게 저녁을 보내는건 가족이나 오랜 친구 같은 분위기 신규임에도 불구하고 이 분위기가 너무 따뜻하고 새삼스러웠던 것 같다. 처음 보는 가족도 있었는데 말이다.


아이들끼리도 너무나 잘 어울려 놀았다. 토개(토끼+개) 밥주기, 쫓기, 나무 올라타기~ 그렇게 아이들도 동참해 윗놀이를 마치고 좀 더 친밀해지고자 알코올의 약간의 도움을 받으며 이야기꽃을 피워나갔던 것 같다.

몸으로 놀던 아이들도 늦은 밤 영화를 볼 때는 반짝반짝 집중하던 눈빛으로 바뀌었다. 몸으로 놀던 아이들이 더 집중을 잘한다는 선생님의 말이 증명되던 순간.^^ 건우, 유채, 영현이 이 어린 아이들은 체력적 한계로 조금 힘들어 보였다. 아니 그들의 엄마들이 힘들어보였다.^^

벼슬을 하면 일반인과 달리 손에 굳이 나락을 들고 다녀야 하는 유토피아가 여기에 있었다. 보통의 단체에서는 신입이 일을 더 많이 하는데 어찌된 곳인지 오랜 연차일수록 술선수범 일을 많이 하는 유토피아적 공간이 이곳이 아닐까 한다. 조원들 부족한 것은 없는지 빠른 눈놀림과 몸놀림으로 필요를 채워주시는 조장, 저녁준비에 이어 가장 늦게 잠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일찍 일어나 아침을 준비하신 지환네, 영현이의 징징거림에도 각종 주방일과 음식준비를 도맡으신 민소네. 분위기 메이커이자 만능요리사 채원네, 유채의 땡깡에도 터전살이를 즐기신 유채네, 그리고 사진담당 하람네. 환상의 조합이지 않은가?

이렇게 감동의 아침을 먹고 월드컵스타디움으로 가기로 했다. 아이들의 야구공 던지기, 배드민턴, 자전거 타기를 하며 즐겁게 보내고, 어른들은 그늘에 앉아 조금의 휴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다. 어른이고 아이고 이쯤되면 체력적으로 한계가 오나보다. 자전

거를 타고 해바라기 터전으로 돌아가는 그 대단한 아이들의 체력에 다시 한번 감탄하며 점심을 가장 거하게 먹었다. 고기를 구워내는 족족 아이들의 입으로 사라져버리고, 아빠들은 고기 구우랴, 엄마들은 밥 챙겨내랴 일심합동이 되는 순간이었다. 맛있는 저녁을 먹고 아빠들이 깨끗이 청소를 해주셨다. 이 얼마나 흐뭇한 광경인가? 엄마들은 앉아서 수다를 떨고, 아빠들은 청소를 하며, 아이들은 자기들의 세계에 빠져 흥겹다.

터전살이를 마치고 나서 우리 아이는 매우 즐거웠던 것 같다. 또 하고 싶다고... 신입인 나의 관점에서 볼 때에도 신선한 경험이고 즐거운 추억이 되었던 것 같다. 터전살이 가족을 만나면 왠지 더 친근하고 가족같은 느낌. 공동육아가 아니고서는 어디서도 맛볼 수 없는 느낌이지 않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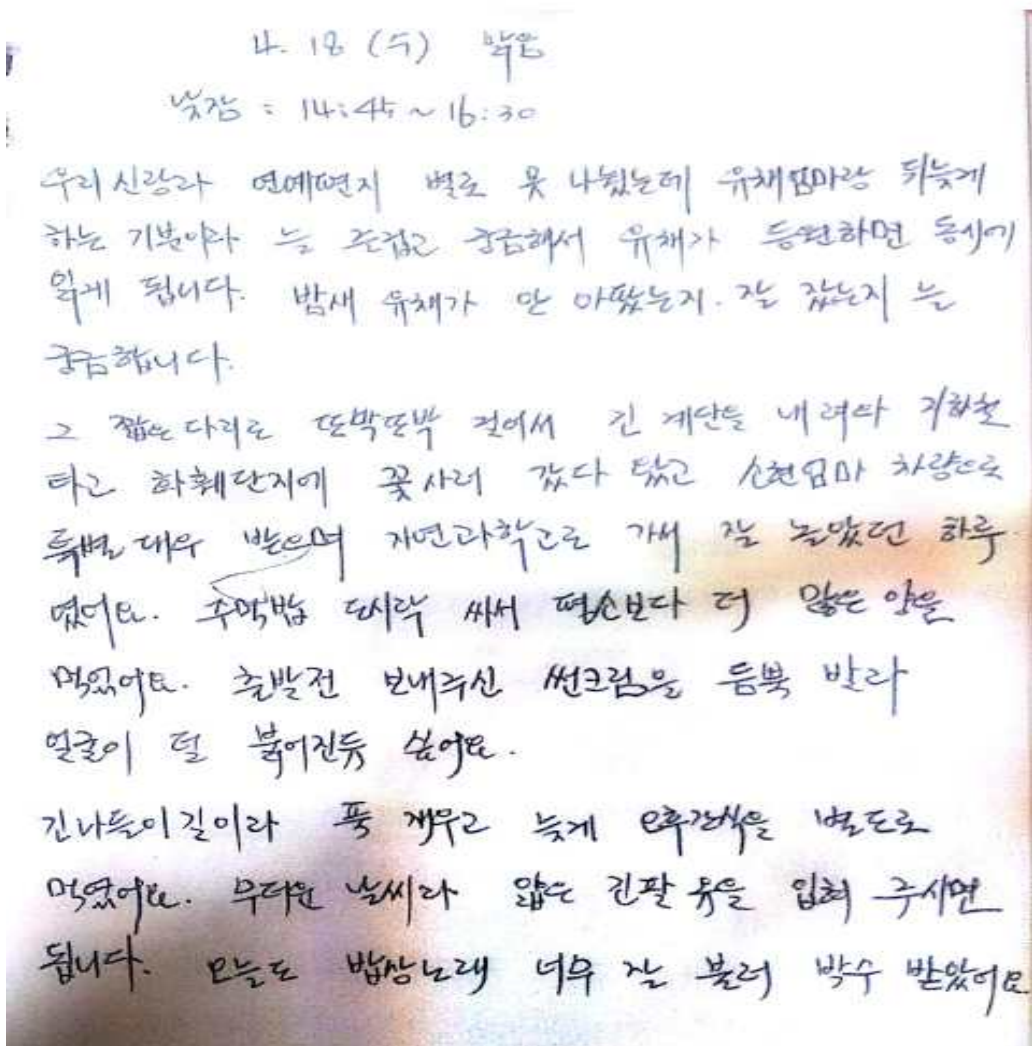
트랜스포머 햇살! 화이팅!

박정애(햇살), 류정하(강유채엄마)

※ 7월호부터 새로 생긴 코너입니다.

이 코너는 아마들의 날적이 중 매달 한편씩 실을 예정이며, 터전 선생님의 추천 또는 본인이 신고자 하시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내용이나 형식은 자유입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4월 17일 화요일 면담일

선생님께 더 날찍이 더 상세히 적어주시고, ^선홍피에도 늘
 만나고 있어서 '면담이 필요할까?' 했는데, 면담, 너무
 좋습니다! 제가 너무 오래 불참하고 있었었지요?^^; 아닙니다
 사실, 아니 면담을 하고 보니, 제가 몇 가지만으로 신입견
 면담으로 세상을, 사람을 보고 있었구나, 여실히 느낍니다.
 '권인'이라는 특수한 직업군에 대한 신입견 + [◎]의 글지
 양을 때 느껴지는 포스 + 군더더기 없이 간결하고 경제적인(?)
 (사실 글을 때로 느껴지는 ^^)
 말투 → [◎]의 대가기가 어려워 ~~~ 유쾌한 안 그런 것 같은데...
 ↳ 이랬었지요. 선생님(부원장)와는 완전히 맞지 않은 것 같아...
열정적으로 투신해서 다 가 버리시는 게 아닐까? ↳ 이런 우려는
사실, 고백하자면, 망설임 없이 ^네 ◎의 아이들을 향한 ~~관심~~
 깊은 애정과 관심을 이제 걱정(?) 없이 편하게 느낄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선생님께 실례가 되는 단어가 많은 줄
알면서도 이렇게 솔직히 말씀드려야 마음속의 진동함을 (제한)
덜 것 같아서... ㅋ ^네 ^네고요
 선생님, 면담을 통해서 ~~내~~ 배운 것이 많습니다. 선배(조함원)이자
 인생의 선배이자 동종의 일을 하는(?) 교사로서 함께, 즐거움과
 즐겁지 않은 ~~일~~ 일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 권인에서 교사로 트랜스포머 되신 것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아자~
 네. 항상 감사해요.

편 집 후 기

오현석 [오은준아빠]

일년의 절반을 달려가고 있네요. 아직은 사고 없이 소식지가 나오고 있어 소위 여러분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

이옥희[김지호엄마]

모두들 7월에도 건강하세요~~

이미지[정강민엄마]

단오행사 너무 뜻 깊게 보냈어요. 제게는 경산 자인 단오제보다 더 크게 와 닿았습니다. 우리에게 잊혀져 가는 중요한 것을 곳곳이 지켜가는 모습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장순향[이수하엄마]

홍보 소위 화이팅!!!

황성원[이루다엄마]

"이만큼 많이 커도 씩씩한 다닐래! 해바라기 언니되고 고산초등학교도 다닐래~" 나날이 쑥쑥 커가는 루다가 이롭니다. 엄마도 이곳에서 더불어 클 수 있길...소식지를 만드는 시간들도 그래서 소중한 듯합니다. 모두들 애쓰셨어요...

김미재[김지오엄마]

더운 여름 지치지 말고 힘내세요!! ☀

월간 함께 크는 우리 아이 통권 제90호

- 발행일 2012년 7월 1일
- 발행 대구공동육아협동조합
- 발행인 변영숙
- 편집위원 대구공동육아협동조합 홍보소위
오현석, 이옥희, 김덕춘, 신미정, 황성원,
장순향, 김미재, 이미지, 박지영
- 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시지동 64-6 (우)706-220
- 전화 053-791-6879
- 홈페이지 <http://cafe.gongdong.or.kr/siksikan>